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6 두상별 정호(가정문화원 이사장)

키스는 사랑의 시작인 동시에 갈등의 시작이다.
결혼의 절반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10쌍의 부부 중에 4쌍이 헤어지고 있다.
결혼날짜 잡아놓고 혼수감 마련하다
미울 상하며 헤어지기도 하고
신혼여행 길에서 파로파로 돌아와 헤어지기도 한다.
어렵게 만나 너무도 쉽게 헤어지고 있다.
하루도 떨어져서는 못살겠다고 소리치더니
이제는 한시도 같이 못 있겠다고 아우성이다.

Feel의 유효기간

결혼하려면 Feel이 꽃혀야 한다고 한다. 그 Feel이 문제다.
Feel이 잘못 꽃히니 갈등이다.

Feel? 무슨 뜻일까?

한눈에 반하는 것이다.

느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콩깍지”이다. 착각이다.

판단력의 부족이다.

이상 간에 필이 한번 꽃히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

마약성분이 있다.

상대방의 장점만을 본다.

반대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상대의 결점은 보지도

못한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상대를 위해 갖은 창의적인 발상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 결혼은 판단력의 부족, 이혼은 이해력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 때문이라고도 한다.

결혼 후 사랑의 호르몬이 일생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1,000일 정도이다.

모르핀과도 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콩깍지가 벗어지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상숙한 사람, 맛있는 사람만 보였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상숙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유치한 아이도 보인다. 상처입은 아이도 보인다. 나와 다른 것이 보인다.

결혼 전에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 문제였다. 한눈에 반한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상대의 장단점을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결혼 후에는 상대의 장점만을 바라보는 한눈으로 살라고 한다.



맞는 게 없어

내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맞는 게 없어”이다.

사실 맞는 게 없다. 기질이며 성격도 다르다. 식성도 다르다. 기풍과 습성도 다르다. 잠자는 짓도 다르다.

하나는 종달새 하나는 올빼미형. 정말 맞는 게 없다.

나는 외향성에 급한 성격, 내 아내는 느리고 침착한 형이다. 솔직한 표현



은 내 아내네는 속 터지는 형이다.
 그래서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영기기도 한다. 부딪치고 냉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파고를 거쳐 43년째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합예술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니 문제가 틀렸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려먹었다고 비난하니 열을 받는 것이다.
 이 다른 것은 차이이고 개성이다.
 달라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단색은 단조롭다.
 단음도 단조롭다. 다른 색 다른 음계의 조화가 아름답다.
 다른 것은 차이이고 그런 차이가 우열을 만드는 것이다. 차이가 경쟁력이다.
 한동인 코드가 같다는 말을 많이 했다. 코드가 같은 사회는 다양성도 창의력도 없다. 부모들로 가는 사회다.
 퇴보하는 사회이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주체사상이라는 단일 코드로 된 사회이다.
 부모도 다른 사람으로 만나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질적인 결혼은 부딪치고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러나 조화를 이룰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자녀도 건강하고 우성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래서 “집중 강세”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람끼리의 동질적인 결합은 갈등이 최고 순환할 수 있다.
 하지만 밋밋하고 다양성이 없고 발전이 없다.



결혼 전 장점이 결혼 후 단점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다.
 그래서 필이 오기도 한다.
 대화가 잘되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말 없는 남자를 만났다.

듬직하고 무개가 있어 믿음직스러웠다.
 그래서 결혼했다. 살다 보니 어떨까?
 말 없는 사나이. 목석 같은 사나이. 이 무뚝뚝한 사나이의와 같이 사는 여자가 행복할까?
 아니다.
 결혼 전에 나와 다른 것이 좋아 보였는데 살아보니 아니다.
 좋아 보였던 장점이 같이 살아보니 단점이다.
 자기와 같이 되라고 안달을 부리고 성화를 부리니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갈등이다.
 결혼 전에는 좋아 보였던 차이와 장점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결혼은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30점과 40점이 만나 100점, 200점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나는 100점인데 상대는 50~60점이라고 생각하니 문제다.
 부부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 보완하며 도와주는 관계이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한다.
 고치기 위해 지적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파경으로 가는 것이다.
 잔소리해서 상대를 고칠 수 없다.
 상대를 고치려거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고치려는 아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를 고치는 방법은 상대를 고치겠다는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다.
 나도 내 아내 몇 가지를 고쳐 보려고 장단기 전략을 구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고 갈등의 골만 깊어갔다.
 아내를 고쳐보려고 계속 시도 하던 때, 기도 중 어느 날 주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고쳐 보려고 30년 해봤는데 안되더라. 너 나 한번 고쳐 보거라.”
 그 후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지니 아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변하니 자녀가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진 것만큼 내 가정도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아내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



무상형 국내호 부부강사(새기정문화원) 무상형 이사장은 7인특강성의 0순위의 인기강사다. 칠성산원(주)을 경영하는 기업인(사)종동선교, YFC, 기아대책(주) 등 이사장으로 섬기며 또 부부가 같이 방송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하다. 저서(토)아침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결혼, 천일 만에 다 써워라> 등이 있다.